

문화재(文化財)란 무엇인가

李弘種

문화재(文化財)는 국민전체(國民全體)가 그 전통(傳統)과 창조력(創造力)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것이라야 하며 나아가서는 국제적(國際的)으로 우수(優秀)한 점(點)이 있어야 한다.

一. 문화재(文化財)의 개념(概念)과 종류(種類)

현재(現在) 국가(國家)에서는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이 제정(制定)되고 그 행정기관(行政機關)으로써 중앙(中央)에는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이 설치(設置)되어 전국(全國)의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보호(保護)와 관리(管理)의 업무(業務)를 수행(遂行)하고 있으니 문화재(文化財)에 대(對)한 구체적(具體的)인 내용(內容)이라든가 또 그 대상(對象)에 대(對)하여서는 세인(世人)이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나 막상 문화재(文化財)에 대(對)한 가치판단(價值判斷)이나 또 그것을 정말 소중(所重)히 여겨야 되는 소이(所以)가 아직 일반국민(一般國民)에게 충분(充分)히 인식(認識)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여 여기서 한번 이 문제(問題)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기본적인(基本的)인 문제(問題)로써 문화재(文化財)라는 어떠한 개념(概念)을 가지고 있을까? 원래(元來) 문화재(文化財)의 「문화(文化)라는 말의 뜻은 자연(自然)에 대(對)해서 말하는 것이며 즉 인간(人間)의 기술적(技術的)인 창조(創造)의 소산(所産)이다. 한편 이와 같은 성과(成果)는 인간(人間)이며 사회적(社會的)으로 역사적(歷史的)으로 그 생활(生活)을 전개(展開)시키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니 이것은 각(各) 민족(民族)에 전통(傳統)으로 전개(展開)시키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니 이것은 각(各) 민족(民族)에 전통(傳統)으로 계승(繼承)되고 또 이 전통(傳統)을 밑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또 새로운 창조(創造)의 길을 발견(發見)해 가는 것이다. 실(實)로 이 전통(傳統)과 창조(創造)는 문화(文化)구조(構造)의 양면(兩面)을 이루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를 결(缺)하여도 문화(文化)의 의미(依微)는 성립(成立)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통(傳統)과 창조생활(創造生活)의 소산(所産)은 인간사회(人間社會)의 향상(向上)과 발전(發展)의 밑거름이 되는 귀중(貴重)한 보배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문화재(文化財)라는 것은 경제상(經濟上)의 재산개념(財産概念)을 문화적(文化的)인 소산(所産)에 그 명칭(名稱)을 전용(轉用)한 것인데 그것을 경제가치(經濟價值)와 구별(區別)하고 대조(對照)시켜서 문화가치(文化價值)를 지닌 것을 말하게 된 것이다. 물론(勿論) 문화재(文化財)도 그것을 돈으로 평가(評價)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러한 경제적(經濟的)인 환폐(換幣)의 관념(觀念)의 바깥에 서서 실용(實用)과는 전연(全然) 성질(性質)이나 차원(次元)이 다른 정신적(精神的)인 가치(價值)를 지닌 것으로 평가(評價)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화재(文化財)라는 관념(觀念)은 자연물(自然物)과 구별(區別)될 뿐만 아니라 인공적(人工的)인 물건 중(物件中)에서도 경제적(經濟的)인 재산(財産)과는

가치관(價値觀)을 달리하는 견지(見地)에서 해석(解釋)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의 총칙(總則)에서는 본법(本法)은 문화재(文化財)를 보존(保存)하여 이를 활용(活用)함으로써 국민(國民)의 문화적(文化的) 향상(向上)을 도모(圖謀)하는 동시(同時)에 인류문화(人類文化) 발전(發展)에 기여(寄與)함을 목적(目的)으로 한다고 명기(明記)하여 본법(本法)의 의도(意圖)하는 바가 원대(遠大)하고 지고(至高)한 바 있음을 첫째로 규정(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제2조(第二條) 문화재(文化財)의 정의(定義)로써 다음과 같이 규정(規定)하고 있다.

① 건조물(建造物), 전적(典籍), 고문서(古文書), 회화(繪畫), 조각(彫刻), 공예품(工藝品) 기타(其他)의 유형(有形)의 문화적(文化的) 소산(所産)으로서 우리 나라의 역사상(歷史上) 또는 예술 상(藝術上) 가치(價値)가 큰 것과 이에 준(準)하는 고고 자료(考古資料).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② 연극(演劇), 음악(音樂), 무용(舞踊), 공예(工藝), 기술(技術) 기타(其他)의 무형(無形)의 문화적(文化的) 소산(所産)으로서 우리 나라의 역사상(歷史上) 또는 예술 상(藝術上) 가치(價値)가 큰 것.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③ 패총(貝塚), 고적(古蹟), 성지(城址), 궁지(宮址), 요지(窯址), 유물포함층(遺物包含層), 기타(其他) 사적지(史蹟地)와 경승지(景勝地). 동물(動物) 식물(植物) 광물(鑛物)로서 우리 나라의 역사상(歷史上), 예술상(藝術上), 학술상(學術上) 또는 관상상(觀賞上) 가치(價値)가 큰 것. (기념물(紀念物))

④ 의식주(衣食住), 생업(生業), 신앙(信仰), 가옥(家屋) 기타(其他)의 물건(物件)으로서 국민생활(國民生活)의 추이(趨移)를 이해(理解)함에 불가결(不可缺)한 것. (민속자료(民俗資料))

이와 같이 문화재(文化財)를 대별(大別)하여 역사상(歷史上), 예술상(藝術上), 가치(價値)가 높은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와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사적(史蹟), 명승(名勝),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과 민속자료(民俗資料)의 4종(四種)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국가(國家)에서는 그 중에 중요(重要)한 것을 지정(指定)하는데 유형문화재 중(有形文化財中)에서 인류문화(人類文化)의 견지(見地)에서 그 가치(價値)가 크고 유래(由來)가 드문 것을 특(特)히 국보(國寶)로 지정(指定)하고 중요문화재(重要文化財)는 보물(寶物)로 지정(指定)하게 되어 있다.

도시별 문화재지정 집계표

종별(種別) 시도별 (市道別)	국보(國寶)	보물(寶物)	사적(史蹟)	사적(史蹟) 및 명승(名勝)	천연기념물 (天然記念物)	계(界)
서울특별시(特別市)	五〇	六七	一三		七	一三七
경기도(京畿道)	二	二九	八		六	四五
충청북도(忠淸北道)	五	九			八	二二
충청남도(忠淸南道)	八	四四	一八		八	七八
전라북도(全羅北道)	三	四二	八		五	五八
전라남도(全羅南道)	一三	五一	一〇		二三	七九
전라남도(全羅南道)	二九	九四	四二	三	一九	一八九
경상북도(慶尙北道)	六	四一	三四		一三	九四
경상남도(慶尙南道)	五	二二	一		一〇	三八
강원도(江原道)		一	一		一二	一四
제주도(濟州道)						
계(計)	一一一	四〇〇	一三五	三	一一一	七七〇

문화재(文化財)의 보존(保存)과 관리(管理) 및 활용(活用)에 관(關)한 사항(事項)을 조사심의(調査審議)하기 위하여 문교부(文敎部)에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를 두며 위원(委員)은 각 분야(各分野)에 학식(學識)이 많은 전문가(專門家)를 위촉(委囑)하는데 3개(三個)의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를 구성(構成)하여 제일분과위원회(第一分科委員會)는 국보(國寶), 고적(古蹟) 기타(其他) 이에 준(準)하는 역사적(歷史的) 문화재(文化財)에 관(關)한 사항(事項)에 대(對)하여 조사심의(調査審議)하며, 제이분과위원회(第二分科委員會)에서는 연극(演劇), 음악(音樂), 무용(舞踊), 공예(工藝)와 민속(民俗)등의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에 관(關)하여 심의(審議)하고, 제삼분과위원회(第三分科委員會)에서는 명승(名勝) 1962년 1월 10일(一九六二年 一月)十日)에 공포(公布)된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에 의거하여 전문적(專門的) 자문기관(諮問機關)인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가 구성(構成)되어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정식(正式)으로서 지정(指定)된 문화재(文化財)(남한(南韓)에 한(限)해서)는 상단표(上段表)와 같다.

二. 한국문화재(韓國文化財)의 특성(特性)

그러면 과연(果然) 우리 나라의 문화재(文化財)가 역사적(歷史的)으로 우수(優秀)하고 그것이 인류문화(人類文化)의 발전(發展)에 기여(寄與)할 수 있을 만치 가치(價値)가 있는가 생각하여보자 흔히 동양세계(東洋世界)에서는 한국(韓國)의 동양(東洋)의 삼국(三國中)에 한나라로 반드시 그 존재(存在)를 나타내왔다. 동양(東洋)의 삼국(三國)이라는 것은 중국(中國), 한국(韓國), 일본(日本)이며 이것은 문화민족국가(文化民族國家)로서 그 존재(存在)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한민족(韓民族)이 황하 유역(黃河流域)에서 유구(悠久)한 세월(歲月)에 걸쳐서 문화(文化)를 창조(創造)해서 그것을 주위 민족(周圍民族)에 강(強)한 영향(影響)을 미쳐온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다. 우리 나라는 이 중국(中國)에 가장 가까이 이웃된 나라로서 역시 크게 그 문화(文化)를 받아들인 것은 사실(事實)이지만은 그 지리적(地理的) 위치 상(位置上) 한편으로는 만주(滿洲) 몽고지방(蒙古地方)의 민족(民族)과도 접촉(接觸)하는 동안에 그들이 지닌 독특(獨特)한 문화(文化)의 요소(要素)도 섭취(攝取)하게 되어 그것을 가지고 독창적(獨創的)으로 독

특(獨特)한 문화(文化)를 창조(創造)하였으며 또 이것을 바다를 건너서 일본(日本)에 전(傳)하였다. 그리고 일본(日本)은 일본(日本)대로 그 민족문화(民族文化)를 창조(創造)하여 갔다. 그 문화(文化)가 좋은 나쁜 역사적(歷史的)으로 계속(繼續)하여 오늘에 이른 것은 동양(東洋)에 민족국가(民族國家)의 흥망성쇠(興亡盛衰)가 많은 중 이 삼국 외(三國外)에는 없다고 하여도 과언(過言)이 아닐 것이다. 특(特)히 일본(日本)에서 그 대륙문화(大陸文化)의 근원(根源)을 따져 볼 때에 가까이는 직접(直接) 우리 나라의 문화(文化)를 연구(研究)하지 않고서는 풀리지 않는 점(點)이 많은 것이다. 즉 우리 나라의 문화(文化)는 동양문화(東洋文化)를 크게 살필 때에 그 문화(文化)의 변천(變遷)과 유동(流動)의 모습을 알려 주는 중요(重要)한 열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요(重要)한 모습을 알려주는 것은 실(實)로 우리 나라의 문화재(文化財)이며 불충분(不充分)한 기록(記錄)으로 자세히 알 수 없었던 점(點)을 뚜렷이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일본(日本)이 과거(過去) 반세기(半世紀)동안 우리 나라를 지배(支配)하는 동안에 그들이 지금도 자랑하는 문화사업(文化事業)으로서 우리 나라의 고적조사(古蹟調査)와 보존사업(保存事業)을 특필대서(特筆大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目的)은 우리 민족(民族)을 문화적(文化的)으로 향상(向上)하고자 하는데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도리어 그들은 우리 민족(民族)의 문화(文化)를 말살(抹殺)하려는 가공(可恐)할 폭정책(暴政策)을 베풀다가 물러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不拘)하고 우리 나라의 고문화(古文化)의 원류(原流)를 살피는데 우리 나라의 우수(優秀)한 문화재(文化財)는 귀중(貴重)한 증거(證據)를 제시(提示)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實)로 우리 나라는 일찍이 선사시대(先史時代)부터 삼국시대(三國時代)를 거쳐 신라(新羅), 고려(高麗), 근조선(近朝鮮)의 각(各) 시대(時代)에 걸쳐 놀라울 만큼 많은 문화재(文化財)를 창조(創造)해 왔고 그것이 동양문화(東洋文化)를 살피는데 없어서는 안될 귀중(貴重)한 존재(存在)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보는 각도(角度)를 이와같이 돌려서 볼 때에 우리 나라의 문화재(文化財)가 비단 우리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전통(傳統)과 창조(創造)에 불가결(不可缺)할 뿐만 아니라 동양문화(東洋文化)에 나아가서는 인류문화발전(人類文化發展)에 기여(寄與)하는 점(點)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이것은 조금도 호언장담(豪言壯談)이 아닌 것이다. 우리 나라가 얼마나 문화창조(文化創造)에 왕성(旺盛)한 의욕(意慾)을 가져 왔는지는 그렇게 지상(地上)의 문화재(文化財)가 많이 파괴유실(破壞流失)되었어도 아직도 매장(埋葬)된 문화재(文化財)가 많은 것을 볼 때에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民族)은 근세(近世)에 들어서서 다년간(多年間)의 악정(惡政)으로 현실생활(現實生活)에서 위축(萎縮)하고 생활의욕(生活意慾)을 상실하여 풍부(豐富)한 문화생활(文化生活)을 하지 못하게 된 나머지 과거(過去)의 빛나는 자기(自己) 문화재(文化財)의 가치(價値)조차 인식(認識)을 하지 못해왔고 지금도 대부분(大部分)의 민중(民衆)은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야 과거(過去) 우리 선인(先人)들이 창조(創造)하여 남겨준 문화재(文化財)의 가치(價値)를 되찾아 인식(認識)하고 거기서 왕성(旺盛)하게 정신적(精神的) 고무(鼓舞)를 받고 기운차게 내일(來日)의 민족문화(民族文化) 창조(創造)에 원천(源泉)을 얻어야 할 것이다.

선사시대(先史時代)의 유적(遺蹟), 유물(遺物)이 동아시아고고학연구(東亞考古學研究)에 중요(重要)한 학술적(學術的) 자료(資料)를 제공(提供)하고 있는 것은 물론(勿論)이며, 삼국시대(三國時代)의 고적문화(古蹟文化)를 통(通)해서 볼 때에 우리 나라 문화재(文化財)의 풍부성(豐富性)과 우수성(優秀性)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다.

우선(優先) 현재(現在) 통구지방(通構地方)과 평양지방(平壤地方)에 있는 고구려(高句麗) 고적(古蹟)에서는 풍부(豐富)한 벽화(壁畫)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기운(氣韻)이 생동(生動)하는 사신도(四神圖)나 신선불로사상(神仙不老思想)에서 빚어 나온 신선비천도(神仙飛天圖)나 불로초지(不老草芝) 같은 관념적(觀念的)인 그림과 주인공(主人公)의 초상화(肖像畫)와 흑(或)은 전투도(戰鬥圖), 수렵도(狩獵圖), 생활풍속도(生活風俗圖), 무용도(舞蹈圖), 각저도(角牴圖) 등 각종(各種)의 것이 자유분방(自由奔放)하게 또는 세려(細麗)하게 그 기법(技法)을 보여주고 있다. 동양회화사상(東洋繪畫史上) 육조시대(六朝時代)의 화적(畫蹟)이 이와같이 풍부(豐富)하게 남은 곳은 그리 없는 바로서 이 고구려(高句麗)의 고적벽화(古蹟壁畫)에 의하여 육조(六朝)의 화풍(畫風)을 엿볼 수 있는 동시에 고구려(高句麗)의 말기(末期) 일세기(一世)간(一世紀間)은 일본(日本)과 고구려(高句麗)는 긴밀(緊密)한 국교(國交)를 맺게 되자 불교문화(佛敎文化)에 따르는 많은 기술자(技術者)도 도일(渡日)한 중 화사(畫師)도 많이 가서 일본(日本)의 회화(繪畫)를 지도(地圖)하고 또 많은 걸작(傑作)도 남겼다. 일본(日本)의 법룡사(法隆寺)의 유명(有名)한 벽화(壁畫)가 고구려(高句麗)의 담징(曇徵)의 작(作)이라는 것은 속설(俗說)로서 취(取)할 수 없는 것이다. 고구려(高句麗)의 이와 같은 고적벽화(古蹟壁畫)를 통(通)하여 그 회화(繪畫)의 역량(力量)을 생각하고 또 실지(實地)로 많은 화사(畫師)가 건너간 기록(記錄)으로 미루어 볼 때에 담징(曇徵) 아닌 많은 고구려(高句麗) 화사(畫師)들의 솜씨가 법룡사벽화(法隆寺壁畫)에 들어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삼국(三國)의 고적시대(古蹟時代)의 신라고적(新羅古蹟)에서 나오는 유보(遺寶)는 금관총(金冠塚)을 대표(代表)로 삼을 수 있거니와 그 보관(寶冠)의 묘(妙), 목걸이, 귀걸이, 팔찌, 과대(袴帶), 환도(環刀), 마구(馬具) 등의 공예품(工藝品)을 만든 솜씨는 당대(當代)의 일본(日本)의 고화(古畫)의 유물(遺物)에 비(比)해서 훨씬 우수(優秀)함을 알 수 있다. 특(特)히 순금(純金) 귀걸이의 화려(華麗)하고 섬세한 수법(手法)은 훌륭하며 여기에 달린 심엽형(心葉形)의 수식부(垂飾部)나 입금세공(粒金細工)의 수법(手法)은 서방적(西方的)인 연관성(聯關性)을 엿보게 되어 이것이 「유럽」의 지중해(地中海) 에-게해(海) 연안(沿岸)에서 발달(發達)된 것이 멀리 동양(東洋)으로 전(傳)해진 것이 신라인(新羅人)이 교묘(巧妙)하게 그 수법(手法)을 금제품(金製品)에 많이 시공(施工)하고 있는 것은 문화전파(文化傳播)의 광범(廣汎)함을 알 수 있으며 또 서봉총(瑞鳳塚)에서 나온 유리컵은 근자의 길 그리스와 흡사한 점(點)이 있어서 이것 역시 서역(西域)을 통(通)하여 서방(西方)의 유리가 동방(東方)으로 전(傳)해진 것이며 우리 나라에서도 고대(古代)의 유리(琉璃)의 제법(製法)까지 체득(體得)하였던 것은 신라고적(新羅古蹟)에서 유리제(琉璃製)의 구옥(勾玉)이나 수(數)많은 목걸이의 유리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신라(新羅)의 이와 같은 이국적(異國的)인 물품(物品)은 여기에 앞서서 고구려(高句麗)를 통(通)해서 전(傳)해진 것으로 해석(解釋)되니, 만약(萬若) 고구려(高句麗)의 고적(古蹟)의 유물(遺物)이 일찍이 도굴(盜掘)되지 않고 전(傳)해 졌다면 신라(新羅)보다 더 찬란(燦爛)한 문물(文物)을 자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백제(百濟)의 문물(文物)이 역시 일찍이 산일(散逸)되어 알 길이 없게 되었지만 백제(百濟)도 고구려(高句麗)와 문물교류(文物交流)가 있었고 또 서해(西海)를 통(通)하여 중국(中國)의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의 남조(南朝)와 빈번히 왕래(往來)하여 불교문화(佛敎文化)를 중심(中心)으로 세련(洗鍊)된 문물(文物)을 전수창조(傳受創造)하여 이것을 신라(新羅), 일본(日本)에 전비(傳碑)것이다. 부여(扶餘)의 백제탑(百濟塔)이

나 익산(益山)의 미륵사탑(彌勒寺塔)에서 또 그 와당(瓦當)이나 전(塼)에서 우아(優雅)하고 세련(洗鍊)된 솜씨를 보여주고 있어서 확실히(確實) 백제(百濟)는 신라(新羅)에 비(比)하여 선진(先進)되고 있다. 최근(最近)에 부여지방(扶餘地方)에서 황수영위원(黃壽永委員)을 수반(首班)으로 하는 동국대학교(東國大學校)의 조사대(調査隊)에 의하여 일(一) 사지(寺址)의 시굴(試掘)이 도모(圖謀)되었는데 그 초석(礎石)의 모습이 익산(益山)의 미륵사지(彌勒寺址)의 초석(礎石)과 같이 굽이 높은 것이 밝혀졌고 또 희귀(稀貴)하게도 토불(土佛)의 파편(破片)을 수집(蒐集)하였는데 이것은 고구려(高句麗)의 원오리사지(元五里寺址) 이래(以來)로 처음 출토(出土)된 예(例)로서 백제(百濟)의 불교문물(佛敎文物)이 장차 더욱 밝혀질 희망(希望)을 갖고 있다.

신라통일기(新羅統一期)에 들어서는 삼국(三國)의 모든 문물(文物)의 전통(傳統)도 여기에 계수집(繼受集) 중(中)되어 외부(外部)로서는 성당(盛唐)의 문물(文物) 특(特)히 원숙(圓熟)한 불교예술(佛敎藝術)이 왕성(旺盛)하게 섭취(攝取)되어 신라인(新羅人)의 창의력(創意力)을 여기에 발휘(發揮)하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통일기(統一期)의 불교예술(佛敎藝術)이야 말로 세계(世界)에 그 우수(優秀)함을 과시(誇示)하고 있는 세인(世人)이 다 아는 바이다. 불국사(佛國寺)의 석가탑(釋迦塔) 다보탑(多寶塔) 백운교(白雲橋)의 아름다운 석조건축(石造建築)의 수법(手法)이나 석굴암(石窟庵)의 제불상(諸佛像), 봉룡사(奉隆寺), 상원사(上院寺) 동종(銅鐘), 통일기(統一期)의 금동불상(金銅佛像)등등 예술(藝術)의 최고(最高)의 경지(境地)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 시기(時期)에 들어서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청자(靑瓷), 팔만대장경판(八萬大藏經板),

조선왕조시대(朝鮮王朝時代)에 들어서는 백자(白磁), 각종(各種) 금속활자(金屬活字)등 세계(世界)에 자랑할 수 있는 우수(優秀)한 문화재(文化財)를 많이 남기고 있으며 근소(僅少)하게 남아있는 목조건물(木造建物) 중(中)에서 고려시대(高麗時代)와 이조전기(李朝前期)에 속(屬)하는 건물(建物)은 역시 아름다운 건축미(建築美)를 남기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에 우리 나라의 문화재(文化財)는 그것이 단지 민족문화(民族文化)로서 소중(所重)할 뿐만 아니라 문화(文化)의 교류(交流)와 그 근원(根源)을 생각 할 수 있는 점(點)이 더욱 귀중(貴重)한 것이며 세계적(世界的)으로 문화(文化)의 특색(特色)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三. 진정한(眞正)한 문화재(文化財)에 대(對)한 인식(認識)

이상(以上) 문화재(文化財)가 우리 민족(民族)에 얼마나 소중(所重)한 정신적(精神的) 유산(遺産)이며 그것을 통(通)하여 우리가 문화민족(文化民族)으로 높은 금도(襟度)를 가지고 자랑하고 오늘의 문화창조(文化創造)에 고무(鼓舞)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國民)은 문화재(文化財)에 대(對)한 진정한(眞正)한 가치판단(價值判斷)을 가져야하며 그것은 학술적(學術的) 연구(研究)에 기반(基盤)을 가져야 한다. 민족(民族)의 전통(傳統)을 찾는다는 것은 고루(固陋)한 배타적(排他的)인 또 독선적(獨善的)인 자가(自家) 도취(陶醉)같은데 빠져서는 안될 일이며, 올바르게 찾는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勿論) 과거(過去)의 역사적(歷史的) 기념물(紀念物)이나 소산(所産)은 광범(廣汎)하게 다 문화재(文化財)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향당적(鄉黨的)으로나 개인적(個人的) 가문(家門)에 한(限)해서 소중(所重)한 것

도 많을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재(文化財)는 국민전체(國民全體)가 그 전통(傳統)과 창조력(創造力)을 우리러 볼 수 있는 것이라야 하며 나아가서는 국제적(國際的)으로 우수(優秀)한 점(點)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가치판단(價值判斷)에 대(對)하여 확고(確固)한 인식(認識)이 없기 때문에 왕왕(往往)이 대수롭지 않는 것을 가지고 국보(國寶)라고 부르짖는 일이 흔히 있으며 그런가 하면 무식무지(無識無知)에서 그 진가(眞價)를 모르고 이것을 중(重)하게 보존(保存) 애호(愛護)할 줄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더욱 곤란(困難)한 것은 문화재(文化財) 보존(保存)을 어떤 정치가(政治家)나 행정관(行政官)이 자기(自己)의 명예(名譽)와功名심(功名心)을 채우기 위하여 도모(圖謀)한다던가 또는 이것을 급리(汲利)와 부당(不當)한 폭리심(暴利心)을 채우는데 급급(汲汲)하여 양심적(良心的)으로 학술적(學術的)으로 성실(誠實)히 보수(補修)를 하지 않는 업자(業者)가 있다면 민족문화(民族文化)를 좀먹는 국가민족(國家民族)의 해충(害虫)이라고 할 수 있다. 법안(法案)이 아무리 훌륭하고 기구(機構)가 아무리 갖추어져 있더라도 사람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所用)도 없는 것이다. 문화재보존(文化財保存)에는 특수(特殊)한 고대적(古代的)인 기술(技術)을 갖추어서 그 복원(復原)에 충실(充實)하여야 한다. 보존(保存)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보수적(保守的)인 입장(立場)에서 있는 것이지만은 고문화재(古文化財)를 통(通)하여 우리는 우리 선인(先人)의 정신(精神)을 받들음으로써 거기서 앞길의 순수(純粹)한 진로(進路)를 얻기 때문이다. 만약(萬若) 이것을 자의적(恣意的)으로 보수(補修)한다면 시대적(時代的)인 전통(傳統)의 귀중(貴重)함은 이내 감득(感得)할 수 없고 그 민족(民族)의 정서(情緒)는 사막(砂漠)같이 메마르게 된다.

(필자(筆者) 고려대학교수(高麗大教授))